

“세상에 공짜가 어딴어?”

면 모든 장애가 사라져.” 스님은 “폭락 들고 정근하면 어려서 쫓 먹던 기억 등 별의별 망상이 일어나지만, 망상은 기도하는 체제가 잡히면 홀연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기도는 반드시 하루 중 언제 해야겠다는 시간을 정하고 3일, 7일, 21일 등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면 발전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30~40년 참선하는 사람도 수행의 진척이 없음을 탓하며 답답해하기도 해. 기도는 하면 하는 만큼 해안이 밝아지니 참선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마음 닦는 것은 염불이나 기도 정진, 참선 등 모든 수행법이 같아.”

간절한 기도의 영험에 대한 해산 스님의 구수한 이야기가 나왔다. 조선 정조 때 선지식으로 조선불교 중흥을 위해 진력한 용파 스님 이야기다. 스님은 당시 외딴 섬이던 거제도도 100일 기도를 떠났다. 스님이 거제도에서 용맹정진에 들어간 것은 따로 이유가 있었다.

정조 임금 때 유명한 어사 박문수가 사불산 대승사에 이르렀을 때, 젊은 스님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장 받아라”는 소리에 다른 스님이 혼수를 뒀다. “이 마(馬)로 상(象)을 치고 차(車)로 장(將)을 부르면 도리어 이기지 않소?” 혼수에 육신간신하던 스님들간에 싸움이 났다. 상스러운 말까지 오가자, 이를 본 어사 박문수가 느닷없이 법당에 소변을 뒀다.

박문수에게 한 스님이 호통을 치니, 박문수가 대답했다. “여기가 부처님 모신 법당이요? 난 마구간 인줄 알았소.” 스님이 되물었다. “마구간이라? 법당이 모셔진 불상이 보이지도 않소?” 그러자 작심한 듯 어사 박문수가 답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말이니 상이니 하는 것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 여기가 마구간으로 알지 않았겠소? 만일 부처님을 모신 도량이라면 염불이나 경 읽는 소리가 나면가, 참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박문수에게 따지고 들던 스님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후 어사 박문수는 정조 임금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했다. “지금 전국 사찰에는 무위도식하는 스님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염불이나 간경, 참선을 하고 있어야 할 스님들이 장기나 두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놀고 먹는 승려들이 없게 해야 할 조는 전국 사찰에 영을 내렸다.”

“앞으로 모든 사찰에서는 종이를 뜨고 산자에 짚을 곁들이 짓박신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만일 무위도식하는 승려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엄히 다스리겠노라.”

그 후 남도지방 절에서는 종이를 찢어 진상하고 금강산을 비롯한 산간의 사찰에서는 잣박산 등을 만들어 진상했다. 심지어는 지방의 양반들까지 스님들에게 족보용 종이를 대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도 있었다. 일부 잔치집은 사찰에 잣박산을 비롯한 유과를 올리라고 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생기니 공부하고 싶은 스님들도 부역에 시달리느라 경을 읽고 참선할 틈이 없었다. 뜻 있는 스님들은 참다못해 환속하는 일까지 생겼다.

용파 스님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정조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스님들의 부역을 중지시키려 했지만 소용 없었다. 상소문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모두 개봉돼 불살라졌던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 가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야겠다고 원력을 세웠다. 이후 거제도에 들어가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용맹정진을 시작한지 100일이 되어갈 무렵, 끼니가 떨어졌다. 그때도 용파 스님은 용맹정진에만 힘썼다. 그때 관음보살이 노인의 모습으로 나뉘 “바위에 붙은 석화를 먹으면 된다”고 일러줬다. 용파 스님은 석화로 주린 배를 채우고 용맹정진해 도를 이뤘다. 섬에 들어갈 때는 배를 뒀으나 나올 때 묵도한 스님은 물위를 걸어 섬을 나왔다. 스님이 물위를 걸으며 섬에서 나온 모습이 파도를 타는 용과 같았다 해서 용파 스님으로 불렸다. 스님의 이야기는 이후 정조 임금을 만나 불법 수호와 승려보호를 간청하고 도반을 순조 임금으로 환생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용파 스님 일화를 들려 준 해산 스님은 “모든 수행에는 고비가 있다. 굶주림도 있고 용맹정진하던 용파 스님처럼 쉬 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산 스님 역시 평생을 정진하며 살았다. 스님은 출가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일하지 않거든 하루 먹지 말라-日不作-日不食’는 백장 스님의 청규 정신을 실천중이다. “말법시대에만 한 가지라도 행을 두고 밥을 먹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딴어? 부처님 밥 먹었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해. 부단하게 정진하고 기도해야 해.”

그래서일까? 대웅화사를 들을 때 울력 하던 스님의 모습이 한없이 자연스럽기만 하다.

“항상 하심하고 조석예를 꼭 참석하고, 하루에 한 가지 선행과 좋은 생각하며 살아야지. 나

는 지금도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예불과 대중운력은 빠지지 않아. 사람은 항상 마음의 계엄을 경계해야 해.”

자애로운 보살의 미소 속에 울골은 수행자의 의연함을 갖춘 해산 스님은 말 한마디가 청규요, 생활은 수행의 연속이다. 스님은 “대중들이 분수보다 큰 욕심을 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타고나듯 사람의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타고나는 것이재. 거시기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마음주머니 크기를 저마다 크게 만드려고 수행을 하제. 사람은 지은 복대로 사는 게야.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 책임이랑께.”

“기도 정진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용서하고 배푸는 이가 진정한 불자”라는 스님의 말씀에서 미륵불의 융화세계를 맞본다.

글=조동섭 기자 o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5) 퇴경 권상로 박사

퇴경 박사님은 별명이 ‘겉어 다니는 불교사전’이요, ‘살아계신 한국의 역사’였다. 하루는 어머니 품에 잘 아는 스님이 와서, “제가 덕의 자손이 되어 그 동안의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하였는데, 그 꿈을 꾸던 날 그 스님은 죽었다 한다. 그래서인지 퇴경 박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300 줄의 글을 외우고, 한번 보고 읽고 쓰면 아무리 어려운 글도 모두 익혀 통달하였다.

1960년 봄 서울 안국동 통문관에 들르니 배잠방이에 광목두루마기를 입으신 늙은 할아버지가 서가를 살피고 있었다. 말 없는 인사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데 얼마 후 있다가 기산 큰스님의 심부름으로 흥통 자택을 찾아가니, 역시 그 때 본 모습으로 서재에 앉아 제했다. 뜰에는 두 송이의 장미가 불타고 있었는데, 방안에는 온통 고서적으로 꽂차 있었다. 한 서(漢書)·일서(日書)는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3면은 손수 쓰신 원고였다.

“이것이 다 선생님께서 손수 쓰신 원고입니까?”
“먹고 할 일 없으니 읽고 쓰는 것이 일이지. 나는 담배도 피울 줄 모르고, 술도 마실 줄 모르고 화투, 장기, 바둑, 골패도 할 줄 모르니 불어내는 것은 원고뿐이야.”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내 나이 16·17세 때 양친을 다 잃고 의탁할 곳이 없어 4년 방황하다가 안진호 스님의 소개로 문경 금동사 월명 스님에게 귀의해 10년 동안 이력을 보고, 영안 스님께 견당을 했지. 그랬더니 금동사에서 세운 경흥학교, 성의학교 강사를 하라고 하더군.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중앙총무원(당시는 圓宗) 편집부장을 하라고 해서 2년 동안 하고, 또 대승사 주지를 하라고 해서 38세까지

했지. 그런데 조선불교 월보사 사장, 상주 보광학교 강사를 맡기고, 나중에 월간 불교사 사장, 불교 전문학교, 동국대학교 교수, 학장, 총장을 하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 학자 아닌 학자가 되었지. 그 외에 하는 일이 뭐 있겠는가. 글 쓰고 강의하고 그것이 전부지.”

“그러면 언제 이 책을 출판할



승·속, 이·사에 두루 밝은 ‘시대의 지도자’ ‘퇴경전서’ 응용한 박사 논문 8권 나와

생각이십니까?”
“자네들이 열심히 돈 벌어 내줘야지. 넌들 무슨 힘이 있는가.” 하고 방긋이 웃으셨다. 어쩌면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98년 불교통신교육원에서 퇴경전서 전10권 1만2800 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책을 냈는지도 모른다.
스님은 1965년 87세로 열반하실 때까지 한국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국어국사편찬위원, 불교포교사, 법제고시위원, 문교부국정교과서 사정위원, 대한고서간행위원, 대한종교연맹고문, 신라가야문화연구위원, 팔만대장경편수위원, 중앙불교연구원장, 동국역경위원, 조계종원로위원장, 현대불교 사장, 불교사상연구회 명예회장 등 해할 수 없는 많은 직책을 가지고 수많은 일을 해 오셨으므로 동국대학교에서는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나

라에서는 대통령이 문화훈장을 드셨다.

1965년 4월 10일 토요일은 우리들이 선생님께 마지막 강의를 받은 날이었다. 여섯 명의 대학원 학생들이 청량리 자택을 찾아가서 두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이야. 옛날 어떤 사람이 황하에 나갔다가 산계(生蟹)를 사다 먹고 껍질을 문 앞에 걸어 놓았더니 그 해 유행성 감기가 걸리지 않았어. 이웃집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물으니,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유행성 병균이 이 말을 듣고, “별 것도 아닌 것에 속았구나” 하고 병균을 퍼뜨려 그 집안 식구들도 예외 없이 고생하였다는 말이 있어. 별 것 아닌 것도 너무 자랑하면 이렇게 귀신에게까지도 홀리는 법이 있으니 조심하게.”

이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삼국유사> 강의였다.

<퇴경전서>에는 <이조실록 불교목록>, <고려사 불교 목록>, <한국사찰전서>, <한국지명연역고> 등 수 백권의 저서가 편집 되어있다. 지금까지 이 책들을 응용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도 여덟 명이나 된다. 문학, 철학, 과학에 이르기까지 인류문화에 필요한 광범위한 자료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고, 서·예·문·인·화를 다 갖추었다. 그림에 대해서도 불화·단청·산수·4군자에 능하고, 글씨에 대해서도 해서·행서·초서·예서·전서 등 8분체를 다 쓰셨다. 그래서 대은 김태홍 스님은 이렇게 스님을 평했다.
“글은 배운데 없는데 문장이요(不學書而文章)
글씨도 공부한데 없는데 명필이네(不工書而名筆)
시인도 아닌데 시에 능하고(不作詩而能詩)
그림도 의할 새 없는데 명화다(不習畫而名畵).”

해산 스님은 1938년 고창 선운사 인근 석성마을에서 태어났다. 대강백 운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50여년 넘게 기도 정진에 힘써왔다. 미륵사 사자암, 고창 선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선운사 주지를 살면서는 원용살림을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이리불교대학 이사장, 천천마한클럽 이사장으로 지역포교와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달 유지비 4,000원 (하루 8시간)

전자파 걱정 끝 초박형 보일러 타입

장수돌침대 만의 믿을 수 있는 A/S

다년간의 연구끝에 숙면과학의 결정체 온수매트 개발!!

2009년 신상품! 장수돌침대 온수매트

첨단 고효율 PTC방식

이젠 전기열선의 시대는 갔습니다. 뜨끈~뜨끈 후끈~후끈!

오로지 온수로만~ 최고 80도! 그 위에, 가마에 구운 황토볼을 팍팍! 참숯을 팍팍 채워~ 황토찜질, 솜뽕까지!

또 하나의 기술력

■규격 : 2인용 : 1450 × 2000
1인용 : 1000 × 2000

보급형 2인용 198,000원 1인용 188,000원
지료분할가 : 2인용 : 47,000원×5회
1인용 : 45,000원×5회

고급형 2인용 248,000원 1인용 238,000원
지료분할가 : 2인용 : 59,000원×5회
1인용 : 57,000원×5회

별다섯! 장수돌침대, 기술력의 개기!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고객이 OK할때까지!!

하나 손수, 물/온수를 이용한, 한국형 매트!

둘 제재기술진의 숙면과학 실현! 전자파에 대한 걱정!

셋 초절전 기술로, 난방비 절약!

넷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A/S

난방비 걱정 끝! 전자파 걱정 끝!

1) 아직도, 그 비싼~ 기름값, 가스값을 낭비하십니까?
이젠, 보일러만큼 후끈후끈하게 데우고!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에서 주무십시오!

2) 본인이 싸비시고, 정말 좋다고 인정되신다면,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십시오.

www.onsu-mat.com
www.장수온수매트.com

LANG SCO (주)장수산업 온수매트 사업부
INDUSTRY CO., LTD.
무료 전화 080-788-7878
충청남도 논산시 943-12-426130 조운성